

아시아종교평화학회 창립학술대회 참관기 -“너는 그렇게 살아도 괜찮겠느냐?”-

김제란

성균관대 한국철학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

지난해 2023년 늦은 가을인 11월 15~21일에 필자는 일본 나고야 및 동경에서 열린 아시아종교평화학회의 창립학술대회에 참석하였다. 이 학회는 이찬수 교수님을 비롯한 한일 양국의 기독교 신학 및 불교학, 종교학, 평화학 학자들이 수년간 창립을 준비하였다가 코로나가 잠잠해진 즈음에 창립대회를 열게 된 것이다. 30명 가까운 한일 학자들이 참여한 창립학술대회의 전체 주제는 “종교의 무엇이 평화가 되는가? - 아시아적 맥락에서”였다. 필자는 준비 작업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제안을 받아 참석하는 행운을 누렸다.



(사진1)
아시아종교평화학회 창립학술대회가 열린
미에현 뚝카이치시에 위치한
일본 정토진종 사찰 정천사(正泉寺)

도착 다음날인 16일에 미에현 ō카이치시에 위치한 일본 정토진종 사찰 정천사(正泉寺)에서 학술대회가 열렸고, 하루종일 쉬지않고 발표가 계속되었다. 발표장은 크고 격식있는 사찰이었지만 난방을 하지 않는 일본의 건축구조상 시간이 지나며 어찌나 추워졌는지, 여러 군데 뜨겁게 켜놓은 전기난로의 온기가 거의 느껴지지 않았다. 그러나 학회장 분위기는 뜨거웠다. ‘평화’라는 묵직한 주제 때문인지, 또는 참석자들이 대개 교수와 승려·목사·민중신학·문화운동 등을 겸직하는 경우가 많아서 실천적 삶이 글에 투영되어서인지 여타 학회와 상당히 다른 울림이 있었다. 연세 많으신 열추 70세가 넘어보이는 일본 스님들이 난로와 차, 도시락을 준비하는 일상의 일들을 차분하게 하시는 것도 인상적이었다. 한국에서 늘 여성들이 맡는 그 일들을 노스님들이 직접 하시는 것이 무척 좋아보였다.



(사진2) 아시아종교평화학회 창립대회에 참석한 한일 양국의 학자들

필자는 이날 발표에서 특히 “마음에 꽃힌” 세 장면을 서술하는 것으로 아시아종교 평화학회 창립학술대회의 참관기를 대신하고자 한다.

www.kci.go.kr

1. 종교의 무엇이 평화가 되는가?

1) 선언: “종교가 평화가 아니라, 평화가 종교이다”

첫 발표는 「종교가 평화적 힘의 출처이기 위한 논리적 모색」이라는 제목으로 종교 평화학자인 이찬수 교수가 시작하였다. 그런데 이 글은 내게 단순한 평화학 논의가 아니라, 아시아종교평화학회 창립 선언문이라고 해도 될 정도의 선언으로 여겨졌다. 주요 논지는 우리가 늘 듣는 “종교인은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거나 “종교는 평화를 추구한다”, 또는 “종교는 평화의 메시지이다”가 아니라, 거꾸로 “평화가 종교이다”는 것이었다. 주어와 술어가 자리를 바꾼 단순한 이 한 문장은 종교의 근본주의적 경계를 넘어서, 완전히 새로운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처럼 느껴졌다. 모든 종교의 핵심 메시지가 ‘평화’라는 사실은 아무도 부정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라는 종교 아이덴티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평화’를 실제로 자신의 삶에서 실현하고 있는가가 바로 종교라는 깨달음은 쉬이 오는 것이 아니다. 평화를 추구하는 모든 행동이 종교라는 깨달음에 선다면, 기독교냐 불교냐 이슬람교이냐를 구획짓고 서로 분쟁하는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금방 알 수 있을 것이다. 특정 종교를 구획지어 서로 공격하는 실마리로 삼는다면, 그것은 단순한 폭력이 아니라 반(反)종교 행위가 될 것이다. 그냥 “종교의 이름으로 행하는 폭력”일 뿐이다. 이런 자각 위에서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모든 종교를 인정하고, 종교다원주의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평화가 바로 종교”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이찬수 선생은 종교 사물화의 원인에 대해 “자기 중심성들이 중첩되며 폭력을 만든다”고 진단하였다. “강자의 자기 중심성을 넘어서야 한다”는 주장이 타당하다면, “종교는 개인과 집단의 자기 중심성을 넘어서고 폭력으로 인한 약자의 상처에 공감하면서 아픔을 치유할 때에만 종교가 된다.” 실제로 종교를 포함한 모든 가치있는 것들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이다. 명사는 상황을 정의(定義, definition)해서 그 정의된 바깥의 것들은 제외시키지만, 동사는 그 상황에서 실재하는 것들을 그대로 수용해서 행동한다. 필자에게는 이 말이 이렇게 들렸다. 평화를 포함한 그 어떤 가치있는 것도 고정된 정체성을 가져서는 안 되고, 평화로 작용할 때에만 종교가 된다고, 고정된 정체성을 가지는 순간 그 고정된 범위에 속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부정되고 제거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기독교가 삼위일체나 부활을 받아들여야 기독교라는 ‘정체성’을 강조하는 순간, 기독교의 핵심인 사랑, 평화의 실천보다 부활이나 삼위일체를 인정하느냐 여부가 중요한 것이 될 것이다. 불교가 연기, 공(空)의 교리에 집착하면, 불교의 핵심인 자비는 뒷전이 될 것이다. 그래서 붓다는 “공 역시도 공이다”(空空)라고 주장하였는가 보다. 여기에서 평화학은 하나의 학문 분과가 아니라 가치관이 된다.

2) 행위 주체성: “평화는 명사가 아니라 동사이다”

필자는 “평화가 종교이다”는 말을 듣는 순간, 주디스 버틀러의 ‘행위 주체성’ 개념이 떠올랐다. ‘행위 주체성’은 니체가 “행위 뒤에 행위자는 없다”고 한 말을 버틀러가 “젠더의 표현물 뒤에 본질로서의 젠더는 없다”고 해석한 데서 시작된 개념이다. 행위자를 선험적으로 가정하지 않고 행위를 통해서만 행위 주체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선험적으로 존재하는 주체를 상정하지 않는 비본질적 주체성 개념을 의미한다. 주체의 내적 본질은 비어있고, 행위를 통해서만 구성되는 주체성을 말한다고 해서 ‘행위주체성’이라고 부른 것이다. 나는 언제나 ‘나라는 존재’가 먼저 있고 나서 이 ‘나라는 존재’가 밥을 먹거나 커피를 마신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밥을 먹거나 커피를 마시는 행위를 통해서만 ‘나라는 주체’가 있게 된다는 것이다. ‘범주로서의 여성’을 전제할 때 그것은 수동적이거나 생물학적인 어떤 특성만 여성이라는 것을 강제함으로써, 나의 여성성을 제한한다.

버틀러는 행위 주체성이 아닌 범주로서 정체성의 내용을 규정하는 것을 ‘정체성의 폭력’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이 정체성의 해체는 근본주의적 틀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필자는 근본주의는 늘 보수주의이며, 정치적 의도를 가진다고 생각한다. 플라톤도, 중세 천주교도, 헤겔도, 심지어 한국의 근본주의 기독교도 모두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구성된 보수주의이다. 평화학이 가치관이고 진보를 지향한다면, 근본주의를 비판하는 것은 당연하다. 근본주의 비판은 과거 보수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독교가, 불교가 혹은 또다른 종교가 어떤 ‘본질’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은 잘못된 전제이다. 사랑이든, 평화든, 또다른 무엇이든 고정된 형태로 정의되고 정체성을 형성하는 부분으로 전락하는 한, 그것은 인간을 옹호하는 장애물에 지나지 않게 된다. 따라서 종교의 한 부분으로, 종교인이 마땅히 해야 할 의무로 평화를 규정하는 것에 반하여, 평화의 실행, 평화의 실천 행위가 바로 종교라고 보는 이찬수 교수의 견해는 전적으로 옳다. 그래서 “종교인이 평화를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실천

하는 이가 종교인”인 것이다.

3) 평화는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고 가치관이다

“종교인은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거나 “(특정) 종교가 평화이다”라는 언설은 어디까지나 종교에 목적이 있다. 그런 경우 평화는 그 종교를 수행하기 위한 수많은 수단들 중 하나가 된다.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종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절대 가치인 종교를 위해 평화라는 수단이 있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은 수단의 목적화이다. 평화가 목적이고, 종교는 평화를 실천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목적과 수단이 자기 자리를 찾으면, 자기 종교 우선주의가 있을 수 없고 종교 다원성을 당연히 받아들여지게 된다. 우리는 역사상 ‘평화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앞세운 전쟁과 폭력’을 수없이 보아왔다. 이것은 평화가 종교를 위한 수단이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수단의 목적화로 수단과 목적이 지위가 바뀌어지면, 특정 종교를 내세우려는 목적을 위해 수많은 수단들이 있게 되고, 평화는 그 수단들 속에서 1,2,3 순위를 받지 못하고 뒤로 밀릴 수 있다. 특정 종교의 성립을 위해 평화는 뒤로 밀려나고, 전쟁이나 폭력, 과시즘, 선전 등 더 강력하고 효과있는 다른 수단이 앞설 수 있다는 말이다. 서양의 십자군 전쟁, 일본의 국가주의적 선불교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기독교 승리를 위해 긴 시간 폭력, 전쟁, 비인간화가 자행되었고, 불교의 위세를 떨치기 위해 젊은이들이 국가에 목숨을 바치고 전쟁을 하라는 메시지가 불교의 이름으로 전해졌다. 그러므로 종교가 평화가 아니라 “평화가 종교”인 것이다.

이찬수 선생은 발표문에서 “종교가 폭력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폭력을 줄이는 ‘감(減)폭력’의 행위가 종교이다”라고 명확히 규정하였다. 국가, 인종, 민족, 신분, 성별 등 힘의 차이에 의한 차별과 희생이 사라진 ‘하느님 나라’와 ‘부처님 나라(=불국토)’와 같은 개혁이 도래할 때까지 폭력을 줄이는 노력이 계속되어야 하며, 평화는 그런 과정으로만 드러난다는 것이 결론이다. 이것은 잠깐의 각성, 쉬운 부활(rebirth)이 아니라 다시 태어나는 갱생(regeneration), 존재의 근본적인 전환으로만 가능할 것이다. 「종교가 평화적 힘의 출처이기 위한 논리적 모색」에서 나의 근본적 정체성을 부정하고, 주어와 술어를 맞바꾸며, 명사 대신 동사의 선택을 제안한 것은 바로 이 갱생을 향한 발걸음이라고 생각하였다.

2. 벼랑 끝의 물음: “너는 그렇게 살아도 괜찮겠느냐?”

1) 한 정토진종 승려의 불교 사회주의 시각

그날 들은 많은 발표문들 중에서 필자의 마음을 가장 끈 것은 오바타 분쇼 교수의 “다카기 켄묘의 현대적 의의”라는 글이었다. 그것은 1909년 천황 대반역사건의 주범 중 한 명으로 몰려 억울하게 사형선고를 받았다가 다음날 사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일본 진종 승려 다카기 켄묘(高木顯明, 1864-1914)에 대한 글이었다. 일본 정부가 반체제 인사들을 뿌리뽑기 위해 조작한 이 사건으로 모두 26명이 기소되고 그 중 12명이 처형되었고, 3년 뒤 다카기 켄묘도 감옥에서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 또한 몇 명의 소수가 폭약을 실험한 것을 근거삼아 이와 전혀 관련없는 일본 전국의 종교인, 사회주의자, 무정부주의자가 6천 명 넘게 체포되었다. 국익으로서의 전쟁보다 인권과 평화를 중시하는 사상이 탄압을 받은 것이다. 이러한 격란 속에 휘말렸던 다카기의 글을 소개하고, 그를 통해 현대적 의미의 반전(反戰)·평화를 생각해보자는 것이 발표자 오바타 분쇼 교수의 의도였다.



(사진3)
다카기 켄묘(高木顯明, 1864-1914)

다카기 켄묘는 “내가 말하는 사회주의란 무엇인가?”라는 글에서 자신의 사회참여, 특히 불교사회주의 시각을 정토종의 ‘염불’과 연관하여 해석하고 있다. ‘염불’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주문이 아니라는 것이다. “나 무아미타불”은 “아미타 부처님께 귀의합니다”라는 뜻이고, 아미타 부처님께 귀의하여 자신의 소원을 들어달라고 비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왔다. 그러나 다카기는 인간이 아미타 부처님께 부탁하는 것이 오히려 아미타 부처님으로부터 “너는 그렇게 살아도 괜찮겠느냐?”는 물음이며, ‘부처님으로부터의 부름’이라고 해석하였다. 그는 정토종의 염불 사상을 그대로 계승하되, 폭력과 탐욕의 일본 제국주의에 대해 전쟁을 하는 인간, 차별을 하는 인간을 자신의 문제로 삼고 있었다.

2) 나무아미타불, 부처님으로부터의 부름

이 암흑의 세계에 서서 구원의 빛과 평화와 행복을 전도하는 것이 우리의 큰 사명을 다하는 것이다. 제군들아, 우리와 함께 이 나무아미타불을 외워주기 바란다. 지금이라도 전쟁 승리를 기원하며 만세를 외치는 것을 멈추어라. 이 나무아미타불은 얼마나 평등하게 구제해 주시는 목소리인가. 제군들아, 바라건대 우리와 함께 이 나무아미타불을 외치며 귀족적 근성을 버리고 평민을 멸시하는 것을 그만두라. 이 나무아미타불은 평민에게 동정의 목소리가 되리라. 제군들아. 이 나무아미타불을 함께 외치며 생존 경쟁의식을 버리고 공동의 삶을 위해 힘써라. 이 나무아미타불을 외우는 사람은 극락의 구성원이 되리라.

다가기의 이 글을 보고 필자는 큰 감동과 함께 충격을 받았다. 이제껏 필자가 생각 하던 정도종은 '타력 신앙'으로서 자신의 노력이나 깨달음에 의거하지 않고 절대적 존재인 외부 힘을 빌어 욕망을 실현하려는 다소 격이 낮은 신앙 방식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유일하며 무소불위한 절대적 신(神)을 믿는 기독교를 전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것도 사실은 그 타력 신앙적 요소 때문이었다. 상대와 절대, 더러운 현실 세계(예토, 穢土)와 깨끗한 극락 세계(정토, 淨土), 생사와 열반의 연속성을 강조하는 대승적 세계관에 근거한 동아시아 불교에 오랫동안 마음을 두고 있었던 터에, 다가기의 이 글은 소위 타력 종교를 다시 보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사회·역사적으로 어려운 시기에는 대승불교가 모든 것을 긍정하는 교리로 인해 명확한 지향성, 즉 초월적 시각을 상실하고, 현실과 깨달음 사이의 긴장 관계를 약화시킬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생사가 곧 열반이고 열반이 곧 생사라는 대승불교의 '즉(卽)'의 논리, 사물과 사물 사이의 막힘없음을 말하는 화엄의 '사사무애(事事無碍)'사상, 사물을 있는 그대로 긍정하는 선불교의 자유가 오히려 무비판적인 현실 긍정, 내지 타협의 결과를 가져올지도 모른다. 일본 근대 화엄종이 제국주의를 지지하는 사상으로 작용한 것이 대표적인 예일 것이다.

불교사상에서 '초월과 부정의 결핍'은 단순한 종교적·철학적 문제만이 아니라 일본 근대의 비극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핵심적인 문제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어두운 시대, 개인의 구원을 향한 강렬한 열정, 공동체의 평등주의적 성격을 가진 정도종의 '염불'이 새로운 구원으로 떠올랐을 수 있다. 모든 중생이 불성을 갖추고 있다는 전통적인 가르침은 자신의 죄악성을 깊이 의식하고 눈앞에서 벌어지는 죄악과 참혹상을 목

도하는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없었다. 즉신성불(卽身成佛)의 약속이나 사사무애(事事無碍)의 세계관 역시 구질서가 붕괴되는 혼돈 속에서 말법시대를 절감하는 사람들에게는 허망한 이야기처럼 느껴졌을 것이다. 여기에 전혀 다른 쉽고 대중적인 접근 방법으로 등장한 것이 ‘염불’이라는 단 하나의 수행이었다. 신심으로 아미타불의 명호를 부르는 염불은 말세 중생이 쉽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쉬운 길’이었다. 그러나 이 쉬운 길은 자신의 한계에 대한 자각, 벼랑 끝에서 구원을 호소하는 절망의 실존, 그리고 깊은 신앙을 요구하였다. 이것이 대중불교로서의 정토 신앙의 극치이다. 다카기의 글을 읽고 나는 정토종을 안이한 타력 종교로 평가절하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직감하였다.



(사진4)
다카기 겐묘(高木顕明)의 묘와 현장비.
일본 와카야마현 신규시에 있는
공용 미니미타니 묘지에 있다.
현장비에는 다카기 겐묘의 글
「나의 사회주의에서 인용한
대목이 적혀 있다.

3) 한계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에 의지할 수 있는가?

실제로 중국에서 정토종이 등장한 것도 바로 시대의 혼란 속에서였다. 중국의 불교도들은 북위 대무제의 폐불과 북주 무제의 불교를 금지하는 칙령 등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불교가 완전히 소멸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가졌고, 말법 사상이 대두하였다. 말법사상은 남북조 시대에서 수나라에 걸쳐서 성립되었는데, 시간을 정법(正法), 상법(像法), 말법(末法)이라는 세 시기로 나누고 말법 시기에 불법이 소멸된다고 보는 사상이

다. “곧 세상의 종말이 올 것이고, 진리는 사라질 것이다”는 현대 종말론에 비견할 만한 사상이다. 이 말법사상을 바탕으로 일어난 대표적인 중국불교 종파가 정토종이다. 그것은 일본도 마찬가지여서, 일본 정토종이 시작된 겐창시대 신불교 운동은 폭풍우, 지진, 대화재, 전염병, 기아, 흑한의 끔찍한 상황을 배경으로 한다. “어린아이가 죽은 어머니의 젖가슴에 매달려 있고, 추위를 이기지 못한 사람들이 불상을 땀감으로 흠쳤고, 시체는 매장되지 못하고 즐비하게 널려 있었다. 황도 도시에만 두 달 사이에 42,000 구의 시체가 거리에 널려 있었다. 온통 오염으로 덮인 세계였다.”(Sansom, *History of Japan*) 한 마디로 인간의 삶을 보장하기 어려운 고난의 시기에 정토종이 등장한 것이다.



(사진5)
중국 정토종의 개조 혜원(慧遠)이 수행했다는 여산(廬山) 동림사(東林寺) 경내의 아미타불상.
아미타불의 48대원을 상징하여 48m 크기로 조성한 금동대불.

정토종은 사바세계인 ‘더러운 땅(예토 穢土)’이 아닌 아미타불의 ‘깨끗한 땅(=정토(淨土))’인 서방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아미타불 정토에 왕생하기 위해서는 아미타불의 명호를 칭념하는 염불을 수행하도록 권하였다. 대표적인 경전이 『무량수경』, 『아미타경』, 『관무량수경』이다. 중국불교에서 독자적인 정토종은曇鸞(曇鸞, 476-542)이 기초를 다졌는데, 그는 원래 불로장생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나 낙양에서 보리류지를 만나 『관무량수경』을 읽고 정토 신앙에 전념했다고 한다. 작은 콩알을 이용해 염불의 회수를 세거나, 무환자나무의 열매를 껌어 염주를 만들어 염불을 세도록 하는 일견 천박해 보이는 방식들은 우리를 자신의 ‘실존적 자각’에 이끄는 가장 쉬운 방식이다. 쉽다고 깊이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 모두 마음의 집중을 통해 아미타불을 마음에 떠올리고 깨끗한 정토를 지향하며 자신을 돌아보는 방법일 것이다.

학회가 끝나고 한국에 돌아온 뒤 나는 내 방에 조용히 앉아 “나무아미타불”이라고 염불을 해보았다. 그러자 아미타 부처님은 곧장 내게 대답하셨다. “너는 어디에 있느냐? 너는 그렇게 살아도 괜찮겠느냐?”

3. 종교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이원론을 넘어야 하는가?

1) 종교적 평화공생 사상의 의미

종교적 평화공생 사상을 중심으로, 미나마타병 투쟁 과정과 화해를 발표하신 기타지마 기신 교수님의 일화를 소개하고자 한다. 교수님의 발표는 미나마타병의 '가해자'와 '피해자'의 양극 대립을 넘어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함께 설 자리를 종교가 제공해주는 예를 소개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당시 이 발표는 내게 깊은 공감을 가져오지는 못했다. 사회·정치적 사건의 경우에, 이원론을 극복하고자 하는 본원의 운동과 가해자의 책임을 요구하는 운동이 병립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흔히 "가해자와 피해자의 이원적 대립을 넘어서는 본원적인 화해를 추구한다"는 캐치플레이어 아래 가해자의 책임을 면책시키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이다. 미나마타병의 경우도 그렇지만, 바다에 핵 폐기물과 오염수를 버리는 일본 기업·국가라는 '가해자'와 그 오염수로 인해 바다의 물고기, 해산물들이 오염되어 건강을 해치고 경제적으로도 큰 타격을 받은 인근 나라 어부들, 국민들이라는 '피해자'가 이원적 대립을 넘어서 본원의 화해를 한다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그 본원적인 화해와 가해자의 책임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가?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는 너무나 가벼운 결론에 도달하여,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분을 흐리고 누구의 책임도 아닌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그러기에 '이원적 대립을 넘어선다'는 말, 그리고 '본원적 화해'가 내게는 설득력없이 들리기만 하였다.

피해자가 내면 깊은 마음에서 솟구치는 본원의 인간애를 바탕으로 가해자를 용서하는 경우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 드문 예는 우리에게 형언할 수 없는 감동을 준다. 자신의 아들을 죽인 살인자를 용서하고 양자로 입양한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를 신문에서 본 적이 있다. "어떻게 그와 같은 일이 가능할까?" 평범한 필자로서는 감히 짐작도 할 수 없지만, 그 행위가 깊은 사랑에서 나온 것임은 알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대립을 넘어서는 행위에 감동한다고 해서 이를 진리라고 규정하고 이 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한다면, 그것은 폭력이다. 아들을 죽인 살인자를 용서하는 아버지의 마음은 강요될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본원의 화해'보다는 오히려 '가해자의 책임'을 요구하는 운동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 대다수는 성인(聖人)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이원론을 극

복하고자 하는 본원의 운동이 가해자의 책임을 요구하는 운동에 도움이 되는가? 그리고 이러한 본원의 운동이 가해자의 책임을 요구하는 운동의 바탕이 되어야만 하는가? 나는 이런 생각들을 하며 기타지마 교수의 발표를 흘려듣고 있었다.

2) 삶의 자각: “용서받지 못하고 잊지도 않고 나는 살아간다.”

그런데 학회가 끝나면서 반전이 일어났다. 하루종일 10명이 넘는 심각한 발표가 이어진 창립학회가 다 끝난지라 피곤하기도 하고, 학회 장소인 일본 사찰 내부가 좁기도 한데 이제 끝나서 안도감도 드는 때였다. 이 때 오바타 분쇼 교수가 나와 마무리를 지으며 아시아종교평화학회를 창립하게 된 동기를 이야기하였다. 70세가 넘어 이미 학교에서 은퇴하고 머리가 하얗게 켜진 오바타 교수가 천천히 말을 시작하였다.

“나는 여행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부터 늘 여기저기를 여행하고는 하였습니다. 젊었을 때 태국에 갔었는데, 수도인 방콕에서 2시간 정도 철도를 타고 미얀마 국경쪽으로 가니 기념관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일본 제국주의 시절에 철도를 놓기 위해 수많은 태국 사람들을 잡아서 노동자를 만들려고 데리고 간 곳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진 그 철도의 가로대 하나하나 밑에 그 사람들을 죽여서 인신 제물로 묻어 놓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놀라운 사실에 갑자기 분위기가 얼어붙고 모두 깜짝 놀랐다. 지금 그곳에는 표식이 있고, 그 표식에는 “용서하자. 용서하자. 그러나 잊지 말자.”고 쓰여 있다고 한다. 일본인 노학자는 이 얘기를 하는 마지막 순간에 의도하지 않은 눈물을 쏟았다. 그러면서 “아니 용서하지 말라. 용서하지 말라. (일본인인) 나는 용서받을 수 없다. 용서받지 못하고 (그러나) 잊지도 않고 나는 살아간다”라고 말하였다. 의도치 않은 그의 눈물이 우리의 평화학회 모임에 진정성의 울림을 주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나도 왈각 눈물이 나왔다. 젊은 시절, 만행이라는 말로도 차마 표현하기 어려운 일본 제국주의의 만행을 본 그 경험이 오바타 교수의 삶의 방향을 결정지었던 것이다. 이러한 만행의 뒤에는 ‘영혼’의 정치를 이용하는 일본 보수주의가 있었다. (이찬수, 『메이지의 그늘』) “나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왔다”는 그의 말이 가진 진정성.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진심이고, 우리의 공부와 학문은 바로 이 마음을 지향하고 표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곳의 참가자들은 모두 한 마음으로 느꼈다. 그의 삶은, 그의 학문은 바로 그러한 경험에 뿌리를 둔 것이라는 사실, 우리가 추구하는 평화는 바로 이 아픔의 치유와 극복이라는 것. 그것에 우리는 모두 공감하였다.

3) 불교가 제안하는 “대자연의 생명으로 나아가는 ‘본원(本願)’적 화해”

일본 제국주의가 이웃 나라 아시아 국민들에게 끼친 악행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윤동주 같은 아름다운 젊은이들을 감옥에 잡아 가두고 의료 실험대상으로 사용한 마루타 사건 (조선일보, 2023.12.23. 기사. “조선인 모조리 살해- 100년 전 일본 관동대학살 공문서 발견”), 한국을 위시한 아시아의 어리고 예쁜 소녀들을 잡아다가 군인들의 성노예로 삼은 위안부 할머니 사건, 중국의 남경 대학살 등 언뜻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사건들만 해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거의 역사적 사건들을 극복하고 평화로 나아갔는가? 우리 속에 내재해 있다가 기회가 있으면 다시 반복될 사건들은 아닌가? 앞에서 기타지마 선생님이 말씀하신 ‘본원적 화해’가 바탕이 되지 않고 가해자를 비난하는 것에 그친다면, 이 일들이 반복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비로소 본원적 화해의 의미가 어렴풋하게 느껴졌다. 기타지마 교수의 발표문을 보니 이렇게 쓰여 있었다.

“본원(本願)은 대자연의 생명에 연결되는 자아, 그것을 지향하는 것이다.”

이 ‘본원’은 미나마타병의 화해에 나선 ‘본원회’가 강조하는 개념으로서 정토진종의 ‘본원’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말한다. 미나마타 지역은 정토진종이 역사적으로 뿌리내린 지역으로, 일반적으로 정토진종 신도들이 염불하는 찬가인 ‘정신계’의 정신과 연결되어 있다고 본다.

아미타 부처님의 중생구제 본원을 믿으면, 현세에서 자연히 즉시 타인과 연대하여 타인구제 활동이 가능해진다. (憶念彌陀佛本願, 自然即是入必定.)

본원의 대지혜의 바다에 들어가면 자리(自利)를 지향하는 염불자는 타력(他力)의 깨달음을 회향한다. (開入本願大智海, 行者正受金剛心.)

본원의 의미가 정확히 와닿지 않았던 필자는 정토종 문헌들을 펼쳐보았다. 그랬더니 거의 한 페이지마다 본원이라는 말이 수없이 나오고 있음을 보고 놀랐다. 정토종에 대해 설명한 책을 들쳐보아도 마찬가지였다. 그 중 한 구절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 참관기를 끝내려고 한다.

“선도의 『관무량수경소』에서 다음 구절을 발견하였다. ‘행주좌와(行住坐臥)에 오직 온 마음을 다해 아미타불의 이름을 읊되 한시도 쉬지 말아라. 이것이 곧 어김없이 해탈을 가져 오는 업(業)일지니, 저 부처님의 본원(本願)에 상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구절을 읽는 순간 나는, 나와 같이 무지한 사람도 이 구절을 삼가 묵상하며 그 진리를 전적으로 의지하여 아미타불의 명호(名號) 읊기를 잊지 않으면, 틀림없이 극락 세계에 왕생하는 선업을 쌓을 수 있다는 사실에 감명을 받았다. 나는 선도가 남긴 이러한 가르침을 믿을 뿐만 아니라 아미타의 큰 서원을 간절한 마음으로 따르게 되었다. 특히 ‘저 부처님의 본원에 상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말은 나의 가슴에 새겨졌다.”(Coates and Ishizuka, *Honen*)

(* 덧붙이는 말)

학회 참석 기간 내내 필자는 편안하고 자기 성찰적인 시간을 선물처럼 누렸는데, 편안함이 몸의 편한 자세가 아니라 함께 하는 사람들의 인격과 상호존중에서 오는 자유임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아시아종교평화학회 창립학술대회는 몸과 마음의 언어, 두 가지로 많은 것을 배운 참으로 보람있는 시간이었기에, 함께 하신 선생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